형이상학 5권

유
2009.05.08
지승대칠

유 대칠 옮김
(토마스 철학 학교)

1장 원리에 관하여

〈1012b34-〉 원리(Ἀρχή, 시작)[1]라 함은 그로부터 처음 움직여지는 실재 사물의 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선 혹은 길은 한편에선 원리를 가지며, 다른 한편에선 반대 끝을 가진다.

〈1013a1-〉 그리고 그로부터 한 사물이 가장 적절하게 야기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배움의 과정은 어느 때 첫 번째 것 혹은 주제의 첫째 것으로부터 야기되지 않지만, 가장 쉽사리 배울 수 있는 것으로부터 야기되어진다.

〈1013a4-〉 그리고 내적부분과 같은 것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야기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배의 용골(龍骨, 배의 기초골격)과 집의 토대 그리고 동물에선 어떤 이들에겐 심장이고,[2] 어떤 이들에겐 뇌(腦)이며,[3] 또 다른 이들에겐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4]

〈1013a7-〉 그리고 비록 내적부분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어떤 것이 처음으로 기인하며, 처음으로 움직여지고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치 부모로부터 자식이, 욕설로부터 싸움이 기인하는 것과 같다.

〈1031a10-〉 그리고 움직이겠다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겠다는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치 도시국가의 권력자와 왕가, 왕과 독재자들이 원리라 불려진다. 또한 예술, 특히 예술을 장인의 기술이 그렇다.

〈1031a14-〉 그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는 사물의 원리라 불린다. 예를 들어, 논증의 가설이 그렇다.

〈1031a16-〉 (원리 또한 같은 방식에서 말 된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원리이다(πάντα γάρ α

---

1) ἀρχή는 출발점, 시작, 시원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에 Ross와 Tredennick는 이를 영어로 beginning이라 번역하며, Kirwan은 이를 origin이리 번역한다. Bonitz는 prinzip이라 번역한다. 그리고 중세의 번역가인 Moerbekesms 라틴어로 principium이라 번역한다.

2) 동물에서 운동의 원리를 심장이라고 가정하는 이들 가운데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속하기도 한다. cf. De generatione animalium 2.4 740a17-19. 그 외 다음의 글에서도 심장에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 131 (DK31A105). “심장은 자기 안으로 드나드는 피의 바다에서 자양분을 얻는데 특히 심장에는 인간들에 의하여 사고라 불리는 것이 있네. 인간에게서 심장 주위의 피는 생각이기 때문이네.” 데모크리토스 80 (DK68B1). “아마도 일종의 타격이나 손상에 의해서 졸도했던 것 같은데 혼을 묶는 끈들이 골수에 뿌리내린 채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심장도 자신의 깊은 곳에 들어 있는 생명의 불씨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3) 플라톤의 『티마이오스』44D에선 운동의 원리가 뇌와 관련되는 논의가 소개된다. 다음을 읽어보자. “우리가 지금 머리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가장 신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몸 전체를 결합한 다음, 이것을 전체에 봉사할 것으로서 그것에 넘겨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장차 있게 될 모든 운동에 머리가 관여하게 될 것임을 알아차리고서였습니다.” 이에 관한 우리말 번역은 다음의 것을 따랐다.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 옮김 (서울: 서광사, 2000).

4)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몇몇은 다양한 생명의 원리를 제시한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필롤라오스 31 (DK44B13). "필롤라오스가 ‘자연에 관해서’라는 책에서 언급하듯이 이성적 동물의 근원들은 네 가지, 즉 두뇌, 심장, 배꼽, 생식기이다. 머리는 지성의 근원이고 심장은 혼과 감각적 지각의 배꼽은 배아의 뿌리내림과 성장의, 생식기는 씨뿌림과 출산의 근원이다. 그리고 두뇌는 사람의 근원을, 심장은 동물의 근원을, 배꼽은 식물의 근원을, 생식기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종자에서 생식기로 자라기 때문이다."

ἴτια ἀρχαί).)[5]

〈1031*a*17-〉 그러므로 모든 원리의 공통된 것은 존재와 만듦과 인식의 우선된 것이다. 어떤 원리는 사물 가운데 내적이고 어떤 것은 외적이다. 그렇게 본성(φύσις)은 원리이며[6] 그렇게 요소이고 사고이며, 선택과 본질(οὐσία)과 목적인이다. 인식과 변화 양자의 다수의 원리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리(ἀρχή)와 원인(αἴτια)을 구분한다. 물론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6)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을 생명체 가운데 운동을 야기하는 능력이라 한다. cf. Met. 5,4 1014b16-1015a19.

2장 원인에 관하여

〈1013a24-〉 원인(αἴτια)이라 함은[7] 어떤 의미에서 그로 어떤 것이 기인하는 내적부분이다. 예를 들어, 동상의 구리와 은그릇의 은이 그렇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다.[8]

〈1013a26〉 다른 의미에서 형상(εἶδος)과 형태, 즉 그러한 부류와 무엇임의 개념(ὁ λόγος τοῦ τί ἦν εἶναι)[9]이다. 예를 들어, 1대 2의 비례 개념과 더 일반적으론 음에서의 수 그리고 비례 개념에서의 부분들이다.

〈1013a29-〉 또한, 그로부터 변화와 정지의 첫 원리(ἀρχή)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계획하는 이는 그것의 원인이며, 아버지는 아들의 원인이고, 더 일반적으론 생산하는 것은 생산되어지는 것의 원인이며, 변화하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것의 원인이다.

〈1013a32-〉 목적(τέλος)과 같은 것, 즉 그것이 향하려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의 원인이 건강이듯이 말이다. 그가 산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 때문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1013a35-〉 어떤 것으로 유인하는 것을 야기하는 목적을 향한 이 모든 것.[10] 예를 들어, 살을 줄이고, 제거하며, 약을 먹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건강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건강이란) 목적의 목표를 위한 것이지만,[11] 그 가운데 도구인 것에 서로 다르고, 또한 작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말이다.

〈1013b3-〉 대략 이러한 것이 원인이 불린다. 동일한 사물은 몇 가지 방식에 의하여 몇 가지 원인을 가지는 것이라 말 되며, 우유적 방식에선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동상은 동상을 만드는 예술적 행위와 구리란 두 가지 원인을 가진다.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상에 의하여 (원인이 된다.) 동일한 방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는 질료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의 근거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각각 다른 것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은 힘의 원인이며, 힘은 노동의 원인이다. 물론 동일한 방식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며, 하나는 목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변화의 원리로 원인이다. 또한 동일한 것은 상반되는 것의 원인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현존에 의하여 어떤 것이 야기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의 결핍은 상반되는 것의 원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선장은 그의 현존에 의하여 항해의 원인이 되지만, 한편 우리는 그의 없음이 조난의 원인이라고 한다. 현존과 결핍, 이 양자는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1013b16-〉 지금 분명한 네 가지에 속하는 원인들을 논하였다. 이를 테면, 글자의 철자, 예술품, 불, 흙 그리고 물체적인 다른 모든 것의 질료 그리고 전체의 부분과 결론의 전제, 이러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기인된다는 의미에서 원인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기체와 같은 원인이다. 예를 들어, 부분이 그렇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체와 합성 그리고 형상과 같은 것

---

7) 원인이 관한 논의는 앞선 원리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읽어야만 한다.

8) 원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이것이라고 말한다. cf. Aristoteles, De Anima 2,1 412a9.

9) 이글의 헬라어는 τοῦ τί ἦν εἶναι이다. 이는 το τί ἦν εἶναι의 소유격이다. τί ἦν εἶναι는 의문문을 일반화한 표현이며, 여기에서 관사 το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법적 난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사용된 동사 ἦν은 반과거형동사이다. 왜 이곳에 반과거형동사를 사용하였는지도 그러한 의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역자는 '무엇임'이라 번역하였다. 본질이라 읽을 수도 있겠다.

10) 목적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는 인간 행위에 관한 윤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1,1 1094a.

11)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지만, 목적을 향한 목표도 원인이라 명시하고 있다.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1,7 1097a25-28.

으로 무엇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정자, 의사 그리고 계획을 가진 이, 더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이들은 그것으로부터 모두 변화와 정지의 원리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의 목적과 적절한 목표로 원인이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은 좋은 것과 목적을 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1013b28-〉 그러므로 몇 가지 형태들에서 원인들이 있다. 물론 원인은 다양한 것이 있다. 하지만 수적으로 원인들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원인은 그렇게 몇 가지 방식에서 말 된다. 더욱더 동일한 종 가운데 있는 어떤 원인은 그 가운데 앞선 것과 뒤의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와 전문가 양자는 건강의 원인이다.[12] 그리고 2와1 그리고 수(ἀριθός)란 양자의 비율은 음의 원인이다.[13] 또한 모든 의미에서 주어진 원인의 부류는 개별적인 것의 원인이다.

〈1013b34-〉 또한 우유(συμβεβηκὸς)와 그러한 부류(γένη)의 의미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상의 경우, 그 가운데 폴리클리토스는 다른 의미에서 조각가가 원인이다. 왜냐하면 폴리클리토스가 있음은 조각가에서 우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 혹은 일반적 의미에서 동물은 동상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폴리클리토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이다.[14] 우유적 원인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것 보다 더 가깝고 어떤 것은 더 멀다. 예를 들어, 하얀 사람 혹은 예술가는 동상의 더 먼 원인이다. 그러나 폴리클리토스 혹은 한 인간은 그렇지 않다.

〈1014a7-〉 고유한 것 혹은 우유적인 것이란 구분 없이, 어떤 것은 가능성 가운데 한정되며, 다른 어떤 것은 현실성 가운데 한정된다. 예를 들어, 건축의 원인은 건축가 혹은 건물을 짓는 건축가 양자이다.

〈1014a10-〉 앞서 논의된 방식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구분이 원인의 결과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 석상과 석상 혹은 일반적으로 유사성과 이 동상 혹은 동상 혹은 일반적으로 질료에 적용된다. 우유적 결과에도 동일하다.

〈1014a13-〉 고유한 것과 우유적인 것 양자는 합성되어진다. 예를 들어, 폴리클리토스와 조각가가 아니라, 폴리클리토스 조각가이다.

〈1014a15-〉 원인은 각각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짐에도 수적으로 여섯 가지이다. 그것들은 개별적인 것 혹은 류(γένος, 類) 혹은 우유 혹은 우유적 부류 그리고 합성되어 혹은 단순하게

---

12) Aristoteles, Metaphysica 6,2 1027b 37. "그리고 한 인간이 창백한 것은 우유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그러한 것도 아니며, 대체로 그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동물이란 것은 우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건축가가 건강을 만드는 것은 우유이다. 왜냐하면 이는 건축가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본성은 그러한 것을 행한다."

13) 음과 수 그리고 비례에 관한 논의는 위-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Ps. Aristoteles, *περι αρμονιαν* 920b 29-921a 4. "왜 누구나 리듬(*ρυθμῳ*)과 톤(ὅλως) 그리고 화음(*συμφωνιαις*)을 즐기는가? 왜 우리는 그로 인하여 자연적 운동을 즐기는가? 이는 새로 태어난 아기 역시 그러한 것을 즐긴다는 것에서 분명해진다. 우리는 도덕적 지시에 의하여 노래를 즐긴다. 또한 우리는 리듬을 즐긴다. 규칙적 리듬으로 알려지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연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비규칙적인 것 보다 더 친근하며, 자연에 더 적절하다(*κατα φύσιν μαλλον*). 규칙에 맞게 행하고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본성(*φυσιν*)과 능력(*δυναμις*)을 보존되고 강화되는 것으로 분명해진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것은 그러한 것을 약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 육체의 병들은 자연에 따른 정돈된 운동엔 있지 않다. 우리는 화음(*συμφωνιᾳ*)을 즐긴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한 조화관계를(*λογον*) 가지는 반대의 혼합이기 때문이다. 조화관계(*λογος*)는 정돈된 것(*ταξις*)이며 이는 자연적으로 즐거운 것(ἡδύ)이다." 이 번역은 본 역자의 번역이다. 이곳에 위-아리스토텔레스는 리듬과음 그리고 화음을 수학적 관계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본성에 적절한 것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역자는 피타고라스적 존재론의 흔적을 읽는다.

14) Aristoteles, Analytica Priora 1,11. 31b12-20.

진술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현실태 가운데 혹은 가능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현실적인 것과 개별적 원인은 그 결과와 공존하거나 하지 않거나이다. 예를 들어, 건강을 회복하는 이 인간에 관한 의학적 논의를 제시하는 이 인간과 건축과정 가운데 이 건설과 함께 건축가가 있다. 그러나 가능태에 의하여 항상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집과 건축가는 동시에 함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병행 참고자료

자연학 2권 3장

[위 2장은 자연학 2권 3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명 병행 문헌이다. 그렇기에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자연학 2권 3장을 이곳에 번역하고 실어둔다.]

〈194b24-〉 하나의 방식에서 그로부터 생성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원인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동상의 구리와 은그릇의 은 그리고 그러한 부류의 것이다.

〈194b27-〉 다른 방식에서 형상과 형태(παράδειγμα)를 원인이라 부른다. 즉 무엇임의 개념과 그러한 부류의 것이다. 음의 2와 1의 비례개념과 일반적으로 수(ἀριθός) 그리고 그 비례개념의 부분이다.

〈194b29-〉 변화와 정지의 첫 번째 원리(ἀρχή)를 우리는 원인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의지를 가진 이는 의지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의 원인이며, 아버지는 아들의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만드는 이는 만들어진 것의 원인이며,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의 원인이다.

〈194b33-〉 목적 혹은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건강은 산책이 원인이다. 즉 산책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는다면, 건강이라고 대답하며,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3장 원소에 관하여

〈1014a26-〉 원소(στοιχειον)라 함은 첫 번째 내적부분이며, 다른 형상과 형상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15] 예를 들어, 말의 원소는 그것으로부터 말이 구성되어지며,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형상에서 다른 말로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구분된다면, 그것들의 부분은 동일한 형상이다. 예를 들어, 물의 부분은 물이며, 이것은 철자의 경우 참인 것은 아니다. 평등하게 물체의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물체가 나누어지며, 형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한 원소의 하나이거나 혹은 하나 보다 더 많은 것이거나 이것은 원소라 불린다.

〈1014a35-〉 도형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증의 원소는 동일한 방식에서 이야기된다. 왜냐하면 그의 각각이 많은 검증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첫 번째 검증은 검증의 원소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가지 명사와 소전제에 의하여 진행되는 첫 번째 삼단논법은 이러한 본성에 대한 것이다.[16]

〈1014b3-〉 '원소'라는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위하여 유용한 어떤 작은 하나의 단위에 적용한다. 이것이 작고 단순하며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로부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원소하는 것이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이고 단순한 이 가운데 각각의 것은 모든 것 혹은 거의 모든 것인 많은 것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는 하나의 일자(하나의 단위)이며 점이 제일의 원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류라 불리는 것은 보편적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어떤 정의도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류를 차이가 아니라 원소라고 부른다. 류가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는 곳에 항상 류가 동반되는 것도 아니며, 차이가 있는 곳은 항상 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7]

〈1014b14-〉 각각의 원소는 각각의 것 가운데 우선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다.

---

15)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물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흙, 공기, 불 그리고 물이라고 확신했다.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Aristoteles, Physica 2,1 192b8. "존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본성적으로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있다. 동물과 그것의 기관, 그리고 식물과 원소, 즉, 흙, 불, 공기, 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엠페도클레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 59 (DK31A30) "아크라가스의 엠페도클레스가 말하기를 네 가지 원소들은 불, 물, 에테르, 흙이며, 그것들의 원인은 사람과 불화이며...", 23 (DK31A37) "게다가 그(엠페도클레스)는 이른바 질료 형태의 네 원소들을 말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133 (DK31B107) "모든 것은 이것들(네가지 뿌리)로 짜 맞추어져 결합되며..."

16) Aristoteles, Analytica Priora 1, 25 14a26,

17) 류와 차이 그리고 종에 관한 상하관계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곳에서 참고하려 읽을 수 있다. Aristoteles, Topica 4,1 121b11-13.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유는 종과 종차보다더 범위가 넓게 말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Aristoteles, Categoriae 3, 1b 16-17. "상하관계가 잇는 류들은 같은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위개념은 하위개념에 대해서 서술되며, 그래서 그 서술된 상위개념에 붙는 창이는 모두 바탕이 되는 하위개념의 차이이기도 하겠다."

4장 본성에 관하여

〈1014b16-〉 본성(φύσις)[18]이라 함은 우선 성장하는 것의 기원(γένεσις)이다. 마치 φύσις의 υ를 길게 발음하는 가운데 보이 말이다.

〈1014b17-〉 또 다르게 그로부터 사물이 성장하는 첫 번째 내적요소이다.

〈1014b18-〉 또한 그로부터 모든 자연적인 것의 제일 운동이 그러한 것 가운데 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접촉과 동화 혹은 태아의 경우와 같이 응착에 의하여 또 다른 것을 통하여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자란다고 이야기된다. 동화와 접촉은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접촉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다른 것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한편 동화된 사물의 경우 양자의 가운데 동일하고 하나인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들 비록 성질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연속체와 양 가운데 단일한 것이며, 또한 접촉에 의한 것 가운데 있는 것 보다 오히려 그들을 동화시키는 것이다.

〈1014b26-〉 본성이란 그 가능성으로부터(ἐκ τῆς δυνάμεως) 제일 질료이며, 형태 없으며, 불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어떤 본성적인 것이 구성되어지며 혹은 그로부터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구리는 동상 혹은 구리 작품의 본성이라 불린다. 목재는 또한 목재로 구성된 것의 본성이다. 유사하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품들은 이들 본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질료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적 대상의 원소는 본성이라 불린다. 어떤 이는 불이라 하고, 어떤 이는 흙이라 하며, 어떤 이는 공기라 하고, 어떤 것은 물이라 한다. 그리고 다른 이는 그러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 가운데 하나이거나 모두라고 한다.

〈1014b35-〉 다른 의미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기체가 그들의 본성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일 합성이 그것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들 혹은 엠페도클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 가운데 본성일 수 없다.
혼합과 혼합된 사물의 교환만이 있다. 본성의 이름은 인간은 그로부터 나온다."

이는 존재하거나 본성적으로 생성되어지는 것과 함께 비록 그것이 그로부터 이미 존재하고 생성되어지는 것이 현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자기 형상과 형태를 가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것들이 그것의 본성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는 까닭을 이 글은 설명한다. 질료와 형상 이 양자로 구성되는 것은 본성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물과 그 부분과 같이 말이다. 그러므로 제일 질료는 본성이며, 관계적으로 우선된 혹은 전적으로 우선된 것이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있다. 구리는 관계적으로 구리 작품에 우선된 것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선된 것은 모든 것이 용해되는 것이 물이라는 가정에선 '물'일 수 있다.[19] 그러나 형상과

---

18) 고대 철학사의 핵심이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적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러한 논의를 한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이에 관한 글을 적은 이라고 한다. 단편 3 (DK)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스 사람들 중 자연에 대해 쓴 글을 대담하게 발표한 최초의 인물이다." 엠페도클레스도 이에 관하여 고민하였다, 단편 6 (DK31A1) "그의 '자연에 관하여'와 '정화의례술'은 5000행에 달하고 '의술론'은 600행에 달한다." 이에 대한 중세 라틴어 번역말은 natura이다.

19) 용해되는 것과 물에 관하여 다음의 읽을거리가 있다. 플라톤, 『티마이오스』58D-E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 "물의 경우에는 맨 먼저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 하는 액체의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녹을 수 있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의 것은 물의 부류들 중세서도 작고 크기가 같지 않은 것(입자)들에 관여

실체(τὸ εἶδος καὶ ἡ οὐσια)도 생성과정의 목적도 그렇다.
〈1015a11-〉 논의된 바와 같은 것으로부터, 실체는 본성의 제일의 것이며 고유한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이란 실체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1015a13-〉 이 모든 논의된 것으로부터, 제일의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 본성이라 불리며, 이는 그 자신이 자신인 한에서 변화의 원리를 가지는 이러한 것의 실체(οὐσία)이다. 왜냐하면 질료는 그것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기에 본성이라 불린다. 그리고 생성과 성장의 과정은 그것들이 이것으로부터 진행되어지는 운동이라는 면에서 본성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성은 가능적인 것(δυνάμει)이든 전적으로 현실적인 것(ἐντελεχείᾳ)이든 아무튼 그 가운데 존재하는 자연물의 운동 원리이다.

※ 병행 참고자료

자연학 2권 1장 일부와 3장

[위 2장은 자연학 2권 1장 일부와 3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명 병행 문헌이다. 그렇기에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자연학 2권 1장 일부와 3장을 이곳에 번역하고 실어둔다.]

1장

〈192b8-〉 존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본성적으로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있다. 동물과 그것의 기관, 식물과 원소, 흙, 불, 공기, 물 등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특징짓는 일반적 성향은 이것들이 그 자체 가운데 어떤 경우엔 장소적으로 운동 혹은 정지의 원리이고, 다른 경우엔 양적으로 성장과 축소의 원리이며, 변형의 발생에선 또한 질적인 변화의 원리이다.

3장

〈194a13-〉 본성은 두 가지로 말된다. 형상과 질료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본성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된다. 그러므로 넓적 코의 무엇임과 같이 그 대상에 관하여 연구해야한다. 그러한 것은 단지 질료에서 독립된 것도 질료만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94a15-〉 또한 사실 우리는 다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한다. 본성의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자연학자가 고려해야하는 것인가? 둘이 합성된 합성체를 고려해야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만일 합성체를 고려한다면, 그는 꼭 이 둘을 연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는 각각 구분되는 것을 아는 동일한 학문인가 상이한 학문인가를 의문해야한다.
〈194a19-〉 고대인들의 논의를 본다면, 그들은 질료만을 고려하였다. 분명 엠페도클레스와 데모크리토스는 형상과 무엇임(τοῦ ἔιδους καὶ τοῦ τί ἦν εἶναι)에 관하여

하고 있는 탓으로 그 불균등성과 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그 자체로도 움직이기가 쉬울 뿐 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녹을 수 있는 부류는 크고 균등한 것들로 구성된 것이라 앞엣것보다도 더 고정적이며, 그 균등성으로 인해 군혀짐으로써 무겁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해되고 응고되는 것은 물 혹은 물과 흙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Aristoteles, Meteor. 382b 31.

거의 말하지 않았다. 만일 예술(εἰ δε ἡ τέχνη μιμείται τὴν φύσιν)이 본성을 모방한다면, 그리고 우선적으로 형상과 지식을 아는 같은 지식의 부분이라면, 의사는 건강의 지식을 알고, 그 가운데 건강이 인식되는 담즙과 담에 관한 지식을 가지며, 건축가는 집의 형상과 질료에 관한 지식을 가진다. 만일 그렇다면, 자연학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자연(본성)을 알아야한다.

〈194a27-〉 목표 혹은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한 수단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본성은 목표 혹은 목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을 향한 연속적 운동을 겪는다면, 그 상태는 그 운동이 그 목표의 수간이란 의미에서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난제는 인간의 죽음을 향한 의도하지 않은 코믹한 구절의 시에서 드러난다. "그는 그의 목적을 가진다. 그가 태어난 것으로 향한." 왜냐하면 여기에서 목적은 어떤 종착점의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최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4a38-〉 예술은 질료를 어떤 이는 그저 만들고 어떤 이는 실용적으로 만든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목표를 위해(ἡμῶν ἕνεκα) 있는 것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면에서 목적(τὲλος)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철학에 관하여』라는 논구에서 설명했듯이 목표(ἕνεκα)란 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94b1-〉 그러므로 예술 그것은 질료를 다루고, 작품을 사용하는 기술과 그것에 대한 제작을 지시하는 기술,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한다. 사용자의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 장인 예술이라 고려된다. 그 차이는 이 예술은 형상을 아는 것이며, 다른 것은 그 질료와 같이 작품을 제작하는 것의 탁월함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키잡이는 키와 같은 것의 분명한 형상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은 이이다. 한편 다른 이가 아는 것은 어떠한 목재로 그리고 어떠한 조작으로 키가 만들어지는지를 안다. 예술에 의하여 그 기능에 의한 질료를 조작하며, 이것이 목표이다. 본성 가운데 질료가 제공된다. 질료는 관계적이다. 왜냐하면 상이한 형상을 수용함으로 적합한 상이한 질료가 있기 때문이다.

〈194b10-〉 나아가 자연학자는 그러한 형상과 무엇임을 고려해야하며, 그것의 질료를 고려해야하는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의사는 힘줄 혹은 대장장이는 구리를 알아야한다. 즉 그는 각각의 목적을 이해해야한다. 자연학자는 그것의 형상이 분리될 수 있는 사물을 고려하지만, 질료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인간과 태양은 인간을 낳기 때문이다. 분리된 것의 무엇임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는 제일 철학의 몫이다.

5장 필연에 관하여

〈1015a20-〉 필연(Ἀναγκαῖον)이라 함은 부수적인 것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흡과 음식이 동물에게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 없이 그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 없이는 선이 있지도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그것 없이 우리는 악으로부터 벗어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약을 먹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연이다. 그리고 이집트로 여행하는 것은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연적이다.

〈1015a26-〉 또한 필연이라 함은 의무적인 것이며 강제적인 것이다. 이는 나아감 혹은 선택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것은 필연적인 것이 불리기 때문이다. 이는 그것이 불쾌란 이유이기도 하다. 마치 에베누스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듯 말이다.

"필연적인 것이란 진저리나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적인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마치 소포클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말이다.

"강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필연적으로 시킨다."

필연이란 설득이 있을 수 없는 냉혹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προαίρεσιν)과 추론(λογισμόν)에 따른 움직이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1015a33-〉 또한,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필연이라 부른다. 사실 다른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식에서 필연을 논했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것이란 말은 나아가는 갓이 강제에 의하여 불가능할 때 어떤 이가 행하고 당하는 것을 필연적이라 말 되기 때문이다. 이 필연적인 것은 다르게 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명과 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에서 선, 그리고 다른 방식에서 생명과 존재는 어떤 상태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필연적인 것이며, 원인(αἰτία)은 필연적인 것의 하나이다.

〈1015b6-〉 검증은 이러한 필연적인 것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검증이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의 원인은 첫 째 전제이다. 만일 그로부터 삼단논법(συλλογισμός)이 나온 그 명제는 다르게 될 수 없다.

〈1015b9-〉 어떤 것에 의하면 그 필연적인 것의 원인은 그 자신이 아니다 외부의 것이다. 한편 다른 것에 의하면 외부의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것의 필연적 원인이다. 우선적인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서 필연은 단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상태 혹은 또 다른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만일 영원하고 불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떠한 강제 혹은 그들 본성에 반하는 것도 그것에 주어질 수 없다.

7장 존재자에 관하여

〈1017a7-〉 존재자(*Τὸ ὄν*)라 함은 부수적인 것(*συμβεβηκός*)이거나 그 자체에 의한 것(*καθ' αὑτό*)이다. 예를 들어, "교양인은 교양적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교양적이다", "그 교양인은 인간이다"와 같은 것은 부수적 방식에서 취해 것이며, 우리가 말한 이와 동일한 방식에서 어떤 교양인은 건축을 한다. 왜냐하면 교양적임은 건축가 가운데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X는 Y이다라는 것은 Y가 X 가운데 부수적인 것이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인 앞서 논의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교양적인 것과 어떤 교양인이 인간이라고 말 할 때, 혹은 어떤 창백한 이는 교양적이며, 어떤 교양적인 것은 인간이고 교양적인 것이 창백한 것이라고 말 할 때, 마지막 두 가지의 방식에서 양자의 술어는 동일한 주어에 부수적인 것이며, 첫 경우 교양적인 것이 인간이라고 할 때, 교양적인 것은 후자 가운데 부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비-창백한 것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되어는 것 경우의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동일한 것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있다'는 것이다. 혹은 술어는 그 주어에 속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그 가운데 그 자체로 서술되어지는 것을 속성으로 가지는 주어는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1017a22-〉 술어의 방식을 의미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있다'라고 이야기된다. 왜냐하면 '있다'는 이야기되어지는 방식만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술어는 그 주체인 것을 지시하며 다른 것은 그것의 성질, 양, 관계, 능동, 수동, 장소, 때 등을 지시하며, 존재자는 이들 각각의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의미된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회복하고 있다"와 "그 인간은 회복한다"는 어떤 차이도 없다. "인간은 걷고 있다"와 '인간이 걷는다' 역시 차이가 없다. 혹은 "인간은 자르고 있다"와 "인간은 자른다"도 그렇다. 그리고 유사하게 다른 경우에도 그러하다.

〈1017a31-〉 또한 긍정과 부정의 의미에서 '있다'(이다, *εἶναι*)는 것이 사물이 진리인 것을 의미하며, '아니 있다'(아니다)는 진리가 아니며 거짓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교양적'이다'"란 이것은 진리이다. 혹은 "소크라테스는 창백한 것이 '아니다'"란 이것은 참이다. "사각형의 대각선은 동일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이것은 거짓이다.

〈1017a35-〉 '있다'(*εἶναι*)와 '있는 것'(*τὸ ὄν*)은 그 가운데 가능적으로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적으로 보는 것과 현실적으로 보는 것, 보고 있는 것의 양자를 이야기한다. 동일한 방식에서 지식을 취하는 능력과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이미 휴식을 취한 것과 앞으로 우리가 휴식을 취할 것이란 것도 그러하다. 실체의 경우도 유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헤르메스가 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며, 선의 반이 선 가운데 있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익지 않은 옥수수가 그러한 것이라 한다. 한 사물이 가능적인 것일 때, 그리고 이미 가능적인 것이 아닐 때,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어진다.

8장 실체에 관하여

〈1017b10-〉 실체(*Οὐσία*)라 함은 단순 물체이다.[20] 예를 들어, 흙, 불, 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 일반적인 물체들과 그것으로 구성되는 사물, 동물, 신적인 것 그리고 이것들의 부분이 그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실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체에 대하여 서술되지 않으며, 남은 것은 그것들에 의하여 서술되기 때문이다.

〈1017b14-〉 또 다른 의미에서, 주체에 대하여 서술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의 내적 요소는 그러한 존재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동물의 경우 영혼과 같은 것이다.

〈1017b17-〉 '이것임'(*τόδε τι*)을 규정하고 지시하는 것의 내적요소, 그것의 소멸은 곧 전체의 소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주장하듯이 평면은 물체의 본질적인 것이며, 선은 평면의 본질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는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것의 본성이라 여겨진다. 이것이 제거될 때, 아무 것도 없게 되며, 그것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

〈1017b21-〉 또한 무엇임(*τὸ τί ἦν εἶναι*), 그것의 개념은 정의이며, 이것은 각각의 실체이다.

〈1017b23-〉 그러므로 실체는 두 가지 의미로 불린다는 것이 귀결된다. 궁극적 주체, 즉 어떤 것에 의하여 더 이상 서술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인 모든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것의 형상과 형태는 본성 가운데 있다.

20) 이에 관한 중세 라틴어 번역말은 substantia이다.

30장 부수적인 것에 관하여

〈1025a14-〉 부수적인 것(συμβεβηκὸς, 우유)이라 함은 어떤 것에 첨부된 것과 참(ἀληθὲς)으로 진술되어지는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진술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파종을 위하여 땅을 파는 가운데 보석을 발견하였다면, 보석을 발견한 바로 이것은 땅을 파는 이에게 부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부터 혹은 다른 이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파종을 할 때 일상적으로 보석이 발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음악가가 창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필연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창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수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속성이 있고 그것들이 주체에 첨부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오직 특정의 장소와 특정의 시간 가운데 이것에 첨부된다. 개별적 주체 혹은 시간 혹은 장소로 인하지 않은 주체에 첨되는 것은 무엇이나 부수적인 것이다. 부수적인 것을 위한 어떤 확정된 원인은 없지만, 오직 경우에 따른 확정되지 않은 원인이 있다. 그가 그곳에 가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폭풍에 의하여 그 여정이 그리됨으로 인하여 그곳에 도달하였다면, X가 에지나에 도달한 것은 부수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부수적인 것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하여 그렇게 존재하고 일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폭풍은 그가 여행하려 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1025a30-〉 부수적인 것이라 함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그 자체에 의하여 각각의 사물에 첨부되는 것은 그 본질 가운데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마치 삼각형에 속하는 두 직각과 그 각의들의 합이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종류의 부수적인 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어떠한 부수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이러한 경우에서 이러하다.

소크라테스 이전 고대 철학 읽기

-『형이상학』 1권을 통하여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번역한 이 글은 하나의 작은 철학사이다. 물론 여기 나온 모든 논의들이 정확한 관점인가는 여러 가지 생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논의들은 시기적으로 우리 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한 철학자가 자신의 선배 철학자들을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탈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당시 철학의 고유한 문제들을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리(근거), 원인, 존재...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앞서 논의한 5권의 논의들에 따로 구분되어 정의된다. 그렇게 때로 구분되어 다루어질 정도로 그 당시 철학 가운데 실재적으로 그 개념들이 현실적으로 기능하였음을 우린 그의 철학사적 고민에서 읽을 수 있다. 왜 5권에선 원리가 중시되며, 본성이 중시되고, 원인이 중시되는지 말이다. 이는 확인해 보자. -

형이상학 1권 3장

〈982b24-〉 분명하게 우리는 제일 원인에 관한 지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 제일 원인을 인식한다고 생각할 때 각각의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인은 네 가지로 이야기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실체와 무엇임(τὴν οὐσίαν καὶ τὸ τί ἦν εἶναι)을 의미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정의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는 원인이며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의미에서 질료와 기체가 원인이며, 세 번째 의미에서 변화의 원리가 원인이며, 네 번째로 원인은 이것에 마주하는 것이다. 즉 목표와 선(τἀγαθόν)이 그렇다. 왜냐하면 목적(τέλος)은 생성하고 변화는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에 관한 우리의 저서에서 이에 관하여 충분하게 논의하였다.
〈983b2-〉 이미 우리는 우리에 앞서 진리에 관하여(περὶ ἀληθείας) 철학하는 그리고 존재에 관하여(τῶν ὄντως) 탐구한 이들을 논박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원리(ἀρχάς)와 원인(αἰτίας)에 관하여 논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논의를 연구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원인의 또 다른 종류를 구하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의 정확성에 관하여 더 확실한 것을 구하거나 해야 할 것이다.
〈983b6-〉 그러므로 최초의 철학자들은 대체로 질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원리가 유일하게 모든 사물의 원리라고 보았다. 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생겨났다가 소멸되어지며,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상태는 변화하기만 실체를 영속하기에 그것들을 원소이나 원리라고 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본성은 언제나 보존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워지거나 음악적인 것이 되어질 때 절대적으로 생성되어지지 않으며, 그가 그 개성을 잃어버렸을 때 소멸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그 자신이 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성되어지는 것도 소멸되어지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어떤 실재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그것에서 생겨나는 바의 본성이 하나이거나 혹은 하나보다 많은 것이거나 이것이 보존되어지게 항상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983b19-〉 그러나 그와 같은 근원의 수효와 종류에 대하여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 중 **탈레스**는[21] 그런 철학의 창시자(ἀρχηγὸς φιλοσοφίας)로 '물'[22]이라고 말하는데, 그 때문에 그는 땅이 물 위에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아마도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과 열 그 자체가 물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에 의하여 모든 것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그것이 모든 것의 원리라고 보는 그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보자면, 모든 씨앗이 축축한 본성(φύσιν ὑγρὰν)을 가진다는 이유로 인하여 바로 그러한 발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이 축축한 것에 대하여 본성의 원리이다(ἀρχὴν τῆς φύσεώς εἶναι).

〈983b28-〉 일부는 지금의 세대에 앞서 오래 전 고대인들을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먼저 신에 관하여 생각하였고, 또한 본성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가졌다. 왜냐하면 그 (시인)들은 창조의 아버지인 오체아누스(Oceanus)와 테티스(Tethys)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물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신들의 명세를 적었다. 그것에 그들은 스틱스(Styx)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가장 오랜 곳은 가장 존경스러운 것이며,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그에 의하여 어떤 이가 맹세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본성에 관한 견해가 실재적으로 고대의 것인지 오랜 최초의 것인지는 불분명한 듯 하다. 그러나 탈레스는 대체로 제일원인에 관하여(περὶ τῆς πρώτης αἰτίας)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히폰**에 관하여 어떤 것도 이야기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의 무가치함으로 인하여 누구도 이들 가운데 그를 포함하려 하지 않는다.[23]

〈984a5-〉 **아낙시메네스**[24]와 **디오게네스**는 '공기'가 물보다 앞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기초적 물체들 가운데 가장 참된 원리라고 주장한다. **메타포니씨움의 힙파수스**와 **에페**

---

21) 탈레스는 자연의 원리에 관한 논의에서 '물'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뿐 아니라, 그는 천문학과 기하학에 관한 연구도 깊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적었다는 책은 그리 분명하지 않다. 단편 4 (DK11B1) "그는 '항해용천문안내서'라고 일컬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글로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단편 6 (DK11A1)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책이라고는 전혀 남기지 않았다. 그의 것으로 돌려지는 '항해용전문안애서'는 사모스 포코스의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단편 7 (DK11B4)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탈레스는 '지점(동지와 하지)에 관하여'와 '분점(춘분과 추분)에 관하여'라는 두 권의 책만 썼고,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단편 8 (DK11A2) "그는 '천체현상에 관하여, '분점에 관하여'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하여 서사시체로 글을 썼다." 탈레스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기하학과 천문학을 처음 다룬 이로 유명한 듯이 보인다. 단편 12 (DK11A11) "어떤 이들에 따르면, 그는 처음으로 천문학을 연구했으며, 일식과 지점을 예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에우데모스도 자신의 '천문학에 관한 탐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때문에 크세노파네스와 헤로도토스는 탈레스를 경이롭게 여긴다.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도 그에 대하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지식은 이집트 여행과 관련되어 사고되곤 했다. 즉 그곳에서 배워왔다는 것이다. 단편 22 (DK11A11) "탈레스가 이집트에 가서 이 학문(기하학)을 최초로 헬라스에 가져왔으며..." 단편 24 (DK11A11) "탈레스는 이즙트에서 철학을 하다가 늙어서 밀레토스로 돌아왔다."

22) 단편 29 "습한 본성은 각각의 사물로 쉽게 변형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데 익숙하다. 그것의 일부분이 증발해서 공기가 되며, 그 공기에서 나온 가장 미세한 것이 에테르로서 빛을 내며 타오른다. 그리고 물은 서로 붙어서 진흙으로 변해 땅으로 굳어진다. 그 때문에 탈레스가 물을 네가지 원소 중에서 마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원소인 냥 단언했던 모양이다."

23) 히폰은 의학사이며, 고대의 철학자이다. 그에 관한 기록은 아리스토텔레스 De anima에서 읽을 수 있다. Aristoteles, De anima 1,2 405b1 "좀 더 미숙한 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히폰과 같이 그것을 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든 것들의 씨앗(정자)가 축축하다는 근거에서 그와 같은 발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4) 아낙시만드로스에 관한 글을 읽어보자. 단편 8 (DK12A10) "탈레스의 동료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정한 것이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의 전체 원인을 지니는데, 이것에서 하늘들과 무수한 모든 세계들 일반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말한다."

소스의 헤라클레토스는[25] 이것을 '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원소(τέτταρα)를 이야기한다.[26] 이미 거론된 것에 네 번째로 '흙'이 더해진다. 그가 말한 이 모든 것은 항상 지속하며, 하나 가운데 합성되어지며, 하나 가운데 분리되어짐으로 여럿과 몇몇의 것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984a12-〉 엠페도클레스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지만, 그 활동은 그보다 뒤진 **클라조매네의 아낙사고라스**는 원리가 수적으로 무한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물 혹은 공기와 같이 그러한 '동종의 것'은 합성 혹은 분리에 의한 그런 방식에서 생성되거나 소멸되어진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방식에서 그것들은 생성되어지지도 않으며, 소멸되어지지도 않지만, 영원하게 지속되어진다.

〈984a18-〉 이러한 것으로부터 원인은 오직 질료라 불리는 것이란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은 안내하고 연구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재적으로 모든 생성과 소멸이 그 하나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혹은 하나 이상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이라면, 왜 그것이 일어났고, 무엇이 원인인가? 당연히 변화를 야기하는 그 자체는 기체가 아니다. 목재와 구리는 그 가운데 변화가 없고, 목재가 침대를 만들지 않으며, 구리는 동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변화의 원인이다. 지금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원인의 두 번째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운동의 원리(ἀρχὴ τῆς κινήσεως)이다.

〈984a27-〉 처음 이러한 연구를 시도한 이 그리고 기체가 하나라고 주장한 이는 그 주제에 관하여 걱정을 일으켰다. 두 번째 원인을 연구하는 것에서 실패했을 지라도, 이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주장하는 이는 전체가 생성과 소멸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방식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와 본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그들에게 소유한 것이다.

〈984b2-〉 우주가 단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파르메니데스**를[27] 제외하면 원인의 이러한 형태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는 한에서 그이다. 뜨거움과 차가움 혹은 불과 흙을 가정하는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원소를 가정하는 이들은 두 번째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 더욱 더 좋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본성을 가지는 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상반되는 방식에서 물과 흙 그리고 그러한 것을 논의한다.

〈984b8-〉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것의 원리에 관한 논의가 있은 이후, 그들은 현실적 세상의 생성을 위하여 출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논의하듯이, 사람들은 다시 원리의 다른 종류를 연구함이 진리 그 자체에 의하여 강제되었다. 왜냐하면 불 혹은 흙 혹은 어떤 다른 원소는 사물이 그들의 존재와 생성 가운데 선하고 고귀하다고 하는 이유의 근거이며 혹은 이들 철학자들은 그것이 있었다고 가정했었던 이러한 것은 그럴 듯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5)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후 개별 학자들을 정리하는 곳에서 다루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의 단편을 읽기 위하여 몇 가지를 제시한다. 단편 77 (DK22B76) "불의 죽음이 공기에세는 생겨남이고, 공기의 죽음이 물에게는 생겨남이다."

26) 엠페도클레스가 이야기하는 네 원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질적으로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로 수용한다고 보인다. Aristoteles, Physica 2,1 192b8. "존재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본성적으로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있다. 동물과 그것의 기관, 그리고 식물과 원소, 즉, 흙, 불, 공기, 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있다고 한다."

27)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다음의 단편에서 읽을 수 있다. Plation, Theaitetos 180E. "그런 부동의 것은 전체로서 그것에 대한 이름이 있음이다." 단편 5 (DK22B6) "파르메니데스는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였다고들 한다."

또한 순간적으로 찰나적인 질료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동물 가운데와 같이 자연 가운데 '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질서와 모든 조화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할 때, 그는 그의 선배의 막무가내 이야기하는 것과 대조하여 냉철한 이로 보인다. 우리는 확실하게 **아낙사고라스**가 이러한 관점을 가졌음을 안다. 그러나 **클라조매네의 헤르모티무스**는 앞서 그것을 진술한 것이라 믿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을 수용하는 이들은 고귀함의 원인이 존재의 원인이며, 그로부터 존재하는 것에 운동을 주는 원인이라 말한다.

형이상학 1권 4장

〈984b23-〉 **헤시오도스**는 그러한 것을 찾고자 한 첫 인물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혹은 **파르메니데스**와 같이 어떤 이들은 사물의 제일 원리로 사랑과 열정을 가정하곤 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생성을 서술하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녀는 모든 신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사랑을 착안하였다."[28]

그리고 헤시오도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참으로 먼저 카오스가 생겼고, 그런 후에 넓은 가슴의 대지...
그리고 사랑, 불멸하는 존재 가운데 가장 처음의 것..."[29]

그것을 움직이고 그들을 결합하게 하는 원인이 세계 가운데 있어야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984b31-〉 이들 학자들이 발견의 우선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열거되어지는 방식은 이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선한 것 혹은 질서와 아름다움 뿐 아니라,. 무질서와 아름답지 않음과 같은 상반되는 것을 가지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선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나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 보다 더 많은 수의 천한 것이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이같은 것의 상호 원인으로 '사랑'과 '증오'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이가 그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재적 의미와 함께 **엠페도클레스**의 진술을 선호하거나 따른다면, 사랑이 선의 원인이며 증오가 악의 원인이라고 가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의 원인이 선 그 자체라면, 아마도 우리가 엠페도클레스가 악과 선을 제일 원리라 말하며, 먼저 그렇게 행하는 첫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정확할 것이다.
〈985a10-〉 우리가 말한 이들 학자들은 분명하게 파악하였고, 『자연학』에서 정의한 원인의 두 가지로 고려되었다. 질료(ὕλη)와 운동(κίνησις)의 그것이다. 모호하고 선명하진 않다. 그것들은 전쟁에서 훈련받지 않은 군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의 반대되는 것을 둘러싸며, 종종 좋은 타격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학문적 원리에서 힘을

28) 플라톤『향연』178B.

29) 헤시오도수 단편 54 "진실로 맨 처음 카오스가 생겼네, 그 다음으로 넓은 가슴의 가이아, 곧 모든 것들의 영원하고 군건한 터전이 생겼으며, 또 안개 짙은 타르타로스가 생겼으니, 넓은 길이 난 땅의 구석에 있도다. 또한 에로스, 불멸하는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이 생겼는데..." 이는『신들의 탄생』116에서 찾을 수 있다.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 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였는지 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방식에서 거의 혹은 결코 그러한 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낙사고라스**는 어떤 필연적 결과를 설명하기 힘든 것이면 어디에서나 등장하였으며, 이때 우주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정신을 제시한다. 그러나 다른 방식에서 그는 일어나는 것의 원인으로 정신이외 어떤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보다 더 나은 원인을 착안하였지만 엠페도클레스는 그것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적어도 여러 방식에서 그는 사랑이 사물을 분리하여, 투쟁이 그것을 결합시킨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주가 투쟁에 의하여 해체되어지는 때면 언제나 불은 하나에로 결합되고, 그렇게 다른 원소들도 각각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사랑의 영향으로 그것들은 하나로 몽이게 되고, 부분들은 다시 각각의 원소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된다.

〈985a28-〉 그러므로 엠페도클레스는 그의 선배와 반대로 이 원인의 구분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운동의 원인은 오직 두 가지이며, 하나가 아니다. 더욱이 그는 처음으로 질료적 원소들이 네 가지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아직 그는 네 가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두 가지로 그것을 논의하였다. 그는 불은 그 자체로 논의하였고, 그것의 반대자는 사물의 한 종류로 다른 근거에서 단일 본성을 가지는 흙이며, 공기 그리고 물이라 한다. 이것은 그의 저서에 대한 연구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철학자는 이러한 방식에서 원리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원리의 수를 제시하였다.

〈985b5-〉 **레우키포스**와 그의 벗 **데모크리토스**는 원소를 꽉 찬 것이며 비워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 하나는 존재하는 것(τὸ ὂν)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τὸ μὴ ὂν)이라 한다. 이 가운데 꽉 차고 단단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며, 비워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그들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비워진 것 보다 꽉 찬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존재하는 것의 질료적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체를 하나로 가정하는 이들이 그것이 당하는 성질들에 의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생성되어지는 것일 때 그 형태와 촘촘함을 그러한 성질들의 원리로 놓는 바와 같이 이들도 원소들의 차이가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이 형태와 위치 그리고 배열의 세 가지 차이를 가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윤곽과 상호접촉 그리고 방향에 의하여 차이를 가질 뿐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윤곽은 형태이고, 상호접촉은 배열이며, 방량은 위치이다. 그런 이유에서 A는 N과 형태가 다르고, AN은 NA와 배열이 다르며, 工은 H와 위치가 다르다. 운동에 대한 의문, 즉 어디에서부터 혹은 어떻게 사물에 주어졌는지, 이 학자들은 다른 이와 같이 게으름으로 간과하였다.

〈985b20-〉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우리의 논의는 초기 학자들은 원인의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형이상학 1권 1장

〈980a22-〉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바란다. 이것의 징표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서 취하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유용성을 제외하고도 그것들은 그 자체로 사랑받는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특히 시각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떤 것보다 보는 것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감각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사물들 사이의 많은 차이를 분명하게 해주고 또한 알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980a27-〉 본성적으로 동물은 감각 능력을 타고나며, 감각함으로부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기억을 만들어내며,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전자는 기억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더 지적이고, 학습하기에 적절하다. 비록 그것들이 학습 능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소리를 듣는 청각 능력이 없는 것은 지각은 있다. 예를 들어, 벌과 이와 같은 동물의 어떤 다른 종류들에서 말이다. 그리고 기억 이외에 청각을 가진 것들은 학습 능력을 가진다.
인간 이외 동물들은 드러남과 기억에 의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연관성을 가진 기억은 조금만 가진다. 그러나 인간이란 종류는 기술과 사려에 의하여 살아간다.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인간 가운데 만들어진다. 같은 것에 대한 몇몇 기억들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단일한 경험을 위한 능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과 기술과 꽤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실재적으로 학문과 기술은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폴로스가 말하듯이 "경험은 기술을 만들지만, 무경험은 우연을 낳는다. 즉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 많은 의견으로부터 대상의 한 종류에 관한 판단이 일어날 때, 기술이 생긴다. 왜냐하면, 칼리아스가 이 병의 아픔을 가질 때, 이것이 그를 낳게 하는 판단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게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도 그리고 많은 개별적 경우에도 이는 경험의 문제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고열과 함께 감기 혹은 담에 걸린 것 같은 이 질병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하나의 종류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특정의 체질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이 좋았다고 하는 판단함은 기술의 문제이다.
〈981a13-〉 행위를 통한 경험은 기술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며, 경험의 인간은 경험이 없이 이론을 가진 이보다 더 우월하다. 이 이유는 경험이 개별자에 관한 지식이고, 기술은 보편적인 것에 관한 것이며, 행위와 생산은 모두 개별자에 관하여 고려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학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방식 가운데의 이외에서 인간을 치료하지 않으며,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개별적인 이름에 의하여 불리어지는 어떤 다른 이들 혹은 칼리아스 혹은 소크라테스를 치료한다. 만일, 인간이 경험 없이 이론을 가진다면, 그리고 보편자를 인식하지만, 이것 가운데 속하는 개별자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종종 치료에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되어지는 것은 개별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과 이해 경험보다 기술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경험을 가진 이보다 기술을 가진 이가 더 현명하다고 가정한다. (이는 지혜가 모든 경우에서 지식에 의존함 포함한다.) 그 이유는 전자는 원인을 알며, 후자는 모른다. 왜냐하면, 경험을 가진 이는 그 사물이 그러함은 알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며, 한편 다른 이들은 이유와 원인을 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장인이 그러한 각각의 기술에서 더 훌륭하고, 더 참된 의미에서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자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해지는 사물의 원인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적 노동자는 불이 타는 것과 같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아는 것 없이 행위하며, 이는 어떤 무생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무생물은 자연적 경향성에 의하여 그들의 기능의 각각을 수행하며, 노동자는 습관에 의하여 그들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의한 이론과 원인을 안다는 점에서 더 현명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는 자의 표시이며,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자의 표시이다. 우리는 기술이 참으로 경험인 것 보다 더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술자는 가르칠 수 있고, 순전히 경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
〈981b10-〉 다시, 우리는 감각의 어떤 것도 지혜로 여기지 않으며, 당연하게 기들은 개별자에 대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준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의 '원인'을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이 뜨거운 원인, 그것들은 단지 그것이 뜨겁다고 말한다.

〈981b13-〉 인간의 일반적 지각을 넘어선 어떤 기술을 우선 발명한 이는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찬양 받는다. 왜냐하면, 그 발견 가운데 어떤 유용성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더 지혜롭고 여타의 것에 비하여 월등하기 때문이다. 어떤 예술이 발견되어질 때, 어떤 것은 삶의 필요성이 지시되며, 또 다른 것은 재현을 지시된다. 후자의 경우는 항상 전자의 경우보다 더 현명한 이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학문의 가지들이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을 발견한 이들이 등장할 때, 즐거움과 삶의 필요성과 무관한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인간이 즐거움을 가지기 시작하는 곳에서 우선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선 수학적 학문은 이집트에서 성립되었다. 왜냐하면 사제 계급은 즐거움이 허락되기 때문이다. 〈981b25-〉 우리는 예술과 학문 그리고 다른 유사한 종류의 것 사이 차이가 있다고『윤리학』에서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의 논의는 바로 이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불리는 것으로 제일 원인과 원리로 고려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논의하였듯이 말이다. 경험을 가진 이는 감각 능력을 가진 이 보다 더 현명하다고 이야기한다. 예술가는 경험을 가진 이보다 더 현명하다. 그리고 장인은 기계공보다 더 현명하다. 사변학은 생산학보다 더 현명한 것이다. 분명하게 지혜는 어떤 원리와 원인에 관한 학문(*σοφία περί τινασ ἀρχὰς καὶ αἰτίας ἐστὶν ἐπιστήμη*)이다.

유 대칠 옮김
(토마스 철학 학교)